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비상계엄령이라는 생동맞은 사태로 나라경제는 곤두박질치고 민생이 실종된 어수선한 탄핵정국 속에 모처럼 가족·친지·지인들과 함께할 민족 최대 명절인 2025 을사년(乙巳年) 설이 다가왔다. 23일 오전 광주 북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신명나는 민속놀이 한마당’ 체험 행사가 열렸다. 이날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아이들이 설날 부모·친지들에게 인사할 세배하는 법을 배우고 있다. /김애리 기자

“어수선한 시국이지만 가족과 함께 걱정 덜어내야죠”

● 설 앞둔 광주버스터미널·송정역 풍경

“긴연휴 동안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며 어수선한 시국으로 뒤숭숭했던 마음을 달래려 합니다.” 설 명절 연휴를 이틀 앞둔 23일 오전 10시께 광주송정역 대합실은 일찌감치 귀성길에 오른 이들로 북적였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여파로 시국이 혼란스럽고, 경기 침체 역시 심각한 상황이지만 귀성객들의 손엔 가족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잔뜩 들려 있었다.

과일 상자나 해산물에 담긴 스티로폼 박스 등을 든 귀성객들은 대부분 전광판을 확인한 뒤 열

이른 귀성 행렬 양손엔 선물 가득

임시공휴일 영향 여행객들도 많아

“안전하고 평온한 명절” 한목소리

차가 출발하는 플랫폼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찬 바람이 부는 탓에 패딩과 코트를 여미면서도 곧 만날 가족들 생각에 표정은 밝았다.

열차 탑승을 기다리던 한 시민은 수화기 너머의 엄마에게 “갈비찜 매콤하게 해달라”고 말하며 활짝 웃었다. 인근에서 “아들”하며 한참을 통화하던 중년 여성도 열차가 들어오자 “이제 곧 출발한다. 조

금만 기다려”라고 애정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남구 봉선동 주민 이봉환(82)씨는 “올해 설 연휴가 깊어 아내와 함께 경기도 고양에 있는 딸아이 집으로 간다”며 “서로 바쁘다 보니 1년에 몇 번 못 보는데 이번 기회에 이야기도 많이 하고 함께 여행도 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비슷한 시각 광주종합버스터미널 역시 귀성객들의 발걸음으로 분주했다.

2년 만에 고향에 내려간다는 박성준(28)씨는 “그동안 자리 잡느라 바빠서 가족과 통화로만 안부를 전했던 터라 이번엔 꼭 직접 찾아뵈려고 일찍 휴가를 냈다”며 “지난해 말부터 시국이 뒤숭숭해 이번 명절만큼은 안전하고 평온하길 바

란다”고 소원했다.

모처럼 고향을 찾는 자녀를 마중 나온 이들도 눈에 띄었다.

다른 가족들과 함께 플래카드를 들고 기다리던 한 어머니는 군복 차림의 아들이 대합실에 들어오자 한달음에 달려가 꼭 안아줬다. 이들 가족은 모두가 함께 기념 촬영을 한 후 서로 안부를 묻으며 터미널을 빠져 나갔다.

광주공항 역시 사람들로 붐볐다. 보통 6일, 길게는 9일까지 쉴 수 있는 ‘황금 연휴’를 맞아 가족·친구 단위로 여행을 떠나는 이들이 많았다.

친구와 함께 우정 여행을 떠나는 이모(30대)씨는 “최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1년 전부

터 준비했던 일정을 취소해야 하나 싶었지만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연차까지 이길 수 있게 돼 계획대로 떠난다”며 “이왕 가기로 한 만큼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려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 오전 안개의 여파로 대부분 항공편의 출발이 예정보다 1-2시간씩 지연돼 일부 여행객들은 점심 식사를 예약했던 식당에 취소 전화를 걸기도 했다.

언니와 동생의 가족까지 모두 함께 제주도로 여행을 떠난다는 김정자(43)씨는 “몇 달 전부터 설 연휴에 여행을 가기로 계획했다”며 “사는 곳이 달라 자주 보지 못하는 가족들이라 이번 기회에 맛있는 것도 먹고 쉬면서 좋은 추억을 만들고 싶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주성학 기자

尹 “실패한 계엄 아니라 예상보다 빨리 끝난 것”

“합법 병력 이동 지시 軍 따른 것”

尹 “특전사 몇명 없었지 않았다”

김용현 “280명 본관 곳곳에 있어”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해 “실패한 계엄이 아니라 예상보다 좀 더 빨리 끝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2면

윤 대통령은 이날 탄핵심판 4차 변론에서 “소추인(국회)은 실패한 계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실패한 계엄이 아니다”며 “저도 빨리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상보다 좀 더 빨리 끝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를 아주 신속히 한 것도 있고, 저 역시도 계엄해제 요구 결의가 나오자마자 곧바로 (김용현 전) 장관과 (박안수) 계엄사령관을 즉시 불러 철수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저나 장관, 군 지휘관도 지금 실무급 영관·위관급 장교의 정치적 소신이 다양하고, 반민주적이고 부당한 일을 지시한다고 할 때 그것을 따르지 않을 것이라 것도 다 알고 있었다”며 “그런 전제하에서 비상계엄 조치를 했고, 그에 따라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이동을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병력 이동 지시는 합법적이기

때문에 군인이 거기에 따른 것이고, 불법행위를 한 게 아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국회 의결 이후 국무회의를 열어 계엄을 해제할 수 있어 좀 기다리다 군을 철수시켰고, 국무회의 정족수가 갖춰지면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먼저 발표했다”라고도 부연했다.

이날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국회 본관 안에 특전사가 몇 명 없지 않았나”고 윤 대통령이 직접 질문한 데 대해 “280명이 본관 곳곳에 있었다”고 답변했다.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280명의 특전사 병력이 국회의사당 본관에 질서 유지 활동을 위해 들어갔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자 피청구인식에 얽은 채로 김 전 장관을 향해 이같이 질문했다. 이날 김 전 장관에 대

한 증인신문에서 윤 대통령이 그에게 한 첫 질문이었다. ▶2면에 계속 /김진수 기자

설 특집 지면 안내

- 지역경제활성화마중물 ‘광주은행’ ▶8면
- 세계 첫 결빙없는 도로 ‘도경건설’ ▶9면
- 도심속 ‘호텔’...‘동행재활요양병원’ ▶10면
- 재난·교통·의료...연휴 종합대책 ▶11면
- 맛·흥·휴...연휴 전담 가볼만한 곳 ▶12면
- 광주세계양궁선수권대회 준비는 ▶13면
- V13을 향해...이범호감독을 만나다 ▶14면
- 박계영의 설 음식...전통 ‘가래떡’ ▶15면
- 설 연휴 온 가족 함께 ‘문화’ 즐겨요 ▶16면
- 연휴극장가공략하는 韓 영화 신작 ▶17면
- 풍성한 안방극장...연휴 TV 프로그램 ▶18-20면

행복한 설 연휴 보내세요 - 광주매일신문 임직원 일동 기증

24일(금) (-1/13)	25일(토) (0/11)	26일(일) (-1/9)	27일(월) (2/6)	28일(화) (-2/3)	29일(수) (-2/4)	30일(목) (-2/4)
-------------------	------------------	------------------	-----------------	------------------	------------------	------------------

*1월25일~1월30일자 신문입니다.

마음을 함께하는 행복한 이음

내 고향을 살리는 아름다운 기부

고향사랑 기부제

고향사랑기부제는 마음을 나누고 행복을 더합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은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보호·육성 등 내 고향 발전을 위해 사용됩니다.

- 기부대상** 주민등록 주소지가 전남이 아닌 전라남도를 응원하는 국민 누구나
- 기부방법** **고향사랑e음**(ilovegohyang.go.kr) 시스템 온라인 기부 또는 금융기관(농협) 창구 대면 기부
※1인당 연간 2,000만원 한도
- 기부혜택** 기부액의 30% 내 지역특산품 등 답례품 제공
※쌀, 한우, 굴비, 김치, 홍어, 배, 전복 등 (300여개)
10만원까지 전액,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

전라남도